



신종길

# KIA, 부상 잡아야 야구판 '호령'

### 의욕 넘쳐 오버 페이스로 줄부상...선수층 얇아 고전 신종길·임준혁·김원섭 등 빈자리 문경찬·김다원 메워 부상도 실력...플레이 조절하고 프로답게 몸관리해야



‘호령이 군단’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한 부상과의 싸움이다.  
매년 KIA 타이거즈는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신음을 해왔다. 젊은 선수층 탓에 부상은 KIA를 잡는 복병이었다. 올 시즌도 부상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큰 부상 없이 스프링캠프는 넘겼지만 시범경기 마지막 날 야수 신종길이 상대 투수의 공에 맞아 견갑골 골절 부상을 입었다. 이후 투수 임준혁이 허리 통증으로 선발 등판 하루를 앞두고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외야수 박준태와 김원섭도 각각 허벅지 근육 부분 파열과 사타구니 통증으로 2군으로 내려갔다. 이외에도 외야수 김주찬, 내야수 필, 내야수 최희섭도 부상으로 잠시 그라운드를 벗어나기도 했다.  
장편지 근육통으로 시즌 1호 부상자가

됐던 김주찬이 제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멀티히트와 멀티홈런을 때려내며 한시를 달리는 했지만 부상은 KIA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경계 대상이다.  
다행히 시즌 초반이라 부상 대처에 여유가 있다.  
임준혁의 부상으로 선발진이 전격 교체됐지만 씩씩한 신인 문경찬이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부상 공백을 메웠다. 신종길이 빠진 외야에서는 김다원이 공·수에서 한 단계 발전한 실력을 발휘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김기태 감독도 긴 시즌을 보고 부상 관리를 하고 있다. 마음이 급했던 김주찬과 달리 김 감독은 느긋하게 라인업에서 김주찬의 이름을 빼며 완벽 복귀를 주문했다. 필은 큰 부상이 아니라 바로 라인업에 재합류했고, 최희섭에게도 차분하게 시간을 주면서 긴 시즌을 준비했다.  
줄부상으로 인한 첫 번째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가 고민이다. 새로운 팀 분위기에 속의욕이 넘친 선수들로 벤치는 조마조마하다. 초반에 나온 KIA의 부상 대부분도 선수들이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

가 발생했다. 기회의 시즌이 되면서 공 하나하나, 타석 하나하나가 절실한 이들의 오버 페이스도 눈에 띈다.  
“절실한 상황의 선수도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는 일이다. 부상 걱정은 된다”는 것이 그라운드를 지켜보는 코칭스태프의 마음이다.  
부상·부진으로 인한 공백 후유증, 첫 풀타임 시즌의 체력 관리 등 부상 변수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시즌 초반 선수단 체력이 비축되면서 그나마 부상에 대한 대처가 수월했지만 시즌이 진행되면 체력 저하로 인한 부상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대체 자원들의 기량 차이도 커질 수 있다.  
혼신을 다한 플레이는 프로선수에게는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부상도 실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원섭



임준혁

## 승부 못낸 '마드리드 더비'

### 챔스 8강 1차전 레알-아틀레티코 0대0 무승부...23일 최종 승부

레알 마드리드(이하 R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하 AT마드리드)의 서로를 향한 복수가 유예됐다.  
AT마드리드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린 R마드리드와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홈 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R마드리드는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유리한 고지에 올랐으나 원하던 복수는 다음 기회로 넘겨야 했다. 게다가 주전

수비수인 마르셀루가 후반 44분 엘로카드를 받으며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없다.  
R마드리드는 올시즌 정규리그는 물론 수페르코파, 코파델레이(국왕컵)에서 AT마드리드를 한 번도 꺾지 못했다. 지난 2월 8일 정규리그 경기에서는 0-4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AT마드리드 역시 복수를 이루지 못했다. AT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R마드리드 '라 데시마(통산 10번째 우승)'의 조연 역할을

하는 골욕을 겪었다.  
R마드리드는 전반전 압도적인 공세를 펼쳤으나 안 오블라크 골키퍼의 선방에 날카로운 슈팅이 여러 차례 막히며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4분 가레스 베일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공을 빼앗은 뒤 골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으나 오블라크 적시에 뛰쳐나오며 선방했다. 전반 36분에는 코너리 상황 페널티지역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감각적인 왼발 아웃프런트 슈팅으로 골을 노렸다. 그러나 공은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다.  
후반 막판에는 AT마드리드가 기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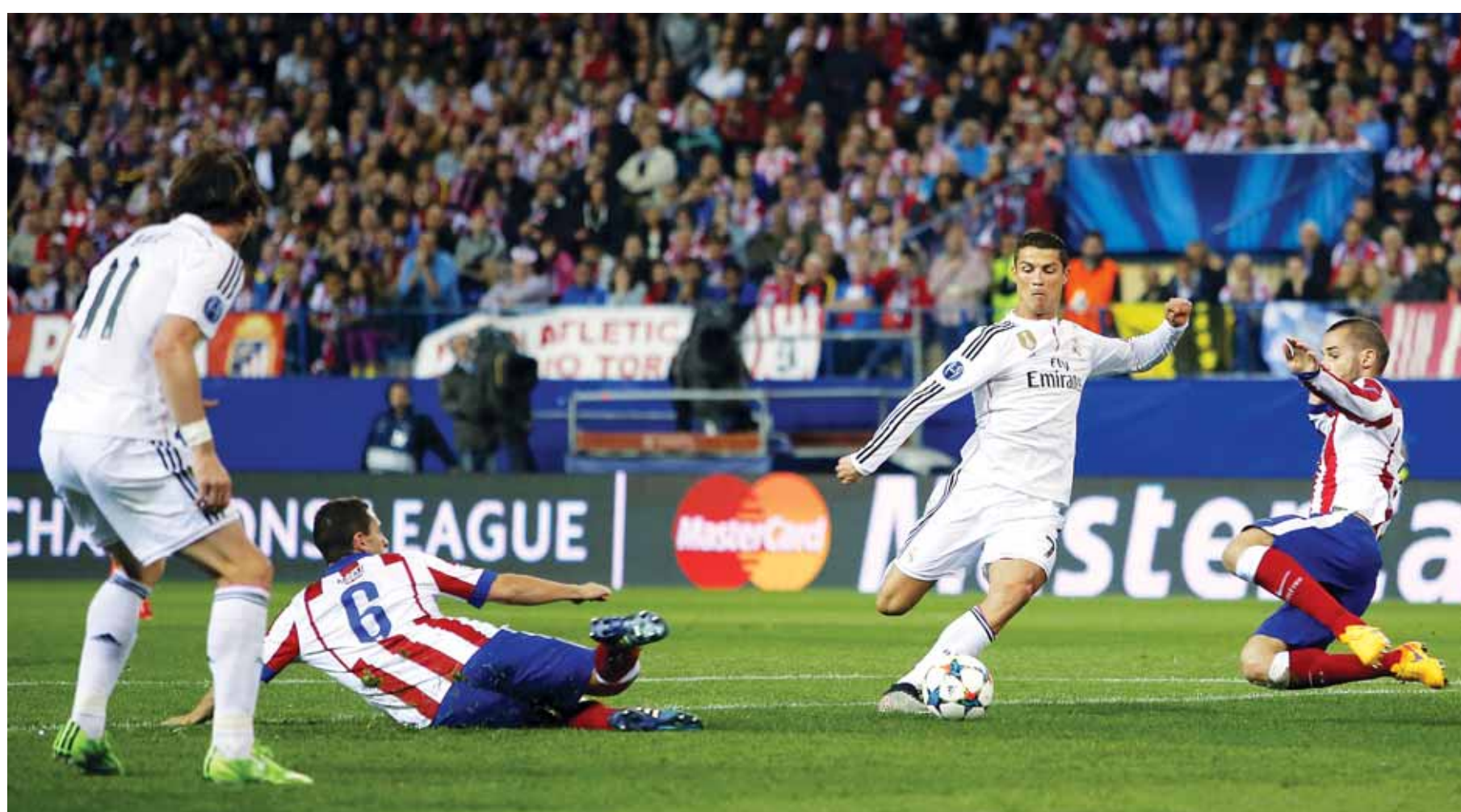
올렸으나 이번에도 골은 없었다.  
유벤투스(이탈리아)는 이탈리아 토리노의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 1차전에서 AS모나코(프랑스)를 1-0으로 꺾었다.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치던 두 팀의 승부는 후반 초반 나온 페널티킥으로 갈렸다. 후반 10분 유벤투스의 '지휘자' 안드레 피를로가 전방으로 정확한 로빙 패스를 뿌렸다. 알바로 모라타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공을 잡으려 하자 히카르두 카르발류가 파울을 범했다. 키커로 나선 아르투로 비달은 공을 골대 왼쪽 상단 구석에 꽂으며 활짝 웃었다.  
/연합뉴스

## 류, 길어지는 공백

### 구체적 복귀 시기 안정해져...다저스 "5월 희망"

왼쪽 어깨 통증이 재발한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복귀 시점이 예상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일간지인 LA 타임스는 15일(이하 한국시간) "다저스는 류현진이 5월 말에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5월 말은 류현진의 재활 속도에 따라 이르면 5월 초에는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훨씬 늦은 시점이다. 5월 말 역시 희망 시기일 뿐 아직 구체적인 복귀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류현진은 이날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앞서 캐치볼 훈련을 했다. 가벼운 캐치볼을 지나 캐치볼의 강도를 높였지만 아직은 가까운 거리다.  
미국 폭스스포츠의 존 모로시 기사는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이 캐치볼 훈련을 진행했지만, 캐치볼 거리는 90피트(약 27.4m)를 넘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어깨 부상 뒤 첫 캐치볼 훈련을 시작했지만, 아직 큰 진척은 없어 보인다.  
모로시 기사는 "류현진의 다저스 로스터 합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 레이저급 송구

### 에인절스전 시즌 첫 보살·1안타 기록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총알 송구로 시즌 첫 보살을 기록하고 안타도 1개 추가했다.  
추신수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쳤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167에서 0.182(22타수 4안타)로 약간 올랐다. 텍사스는 8-2로 완승하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추신수는 1회 초 수비에서 전매특허인 레이저 송구를 선보였다. 우전 안타를 친 에인절스 톱타자 에릭 아이바가 1루를 돌아 2루로 내달리자 추신수는 공을 잡아 2루에 강하게 뿌렸다.  
2루에 들어온 유격수 엘비스 안드루스가 추신수의 송구를 노바운드로 잡

아 아이바를 태그 아웃 처리했다.  
중견수(2013년), 좌익수(2014년)를 거쳐 3년 만에 원래 자리인 우익수로 돌아온 추신수가 올해 처음으로 잡은 보살이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12년 한해에만 보살 14개를 기록한 추신수는 이날까지 통산 보살 63개를 잡았다. 그 중 우익수로 기록한 보살은 46개다.  
등 통증에도 정확한 송구로 기본 좋게 경기를 시작한 추신수는 2회 첫 타석에서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3회 무사 1루에서 기술적인 타격으로 안타를 만들어냈다. 추신수는 5회에는 1루 땅볼, 7회에는 삼진으로 물러났고 8회 초 수비 때 제이크 스톨린스키로 교체됐다.  
/연합뉴스